

동시 김미라

추사체*


컴퓨터 한글에 있는
글씨체에
추사체는 없다.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고

벼루
열 개를
밀장 낸 뒤 탄생한 추사체


AI도 따라 쓸 수 없나 보다.

*추사체 :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체



약력

- ▲'아동문예' 문학상
- ▲'무등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 당선
- ▲동시집 :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여행', '마법사는 바로 나!', '어느 쪽으로 갈래?', '마음이 말랑말랑', '하늘시계 작동 중'
-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광주문학상, 박종화문학상 수상



시 문정숙

청보리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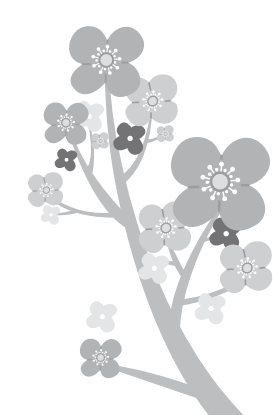
내 고향 강진 4월의 들뜬은
춤추는 연꽃빛 바다
청보리밭
떠꺼머리 사내들
보리피리 불던 언덕

보리밭 사잇길
까만 고무신 무명 적삼 입고
땀기머리 처녀의 눈매는

지금도 내 기억 속에 남아
노란 유채꽃으로 피어있다


하얀 구름
산등선에 머물 곳
맑고 청아한
연꽃빛 바다를 본다

아지랑이
청보리와 어울려
아련한 고향의 봄 그려주니
내 어릴 적
그 놀던 때가 몹시도 그림자



약력

- ▲월간 '문학세계' 시 등단
- ▲18회 세계문학상 본상 수상, 문화예술 공로상 수상
- ▲(사)대한방송 언론기자협회 인제대상 수상
- ▲미주예총시화전 미주예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
- ▲문학세계 문학상 수상, 한국예총문학상 수상
- ▲시집 : '여명의 빛 하늘 아래', '수선되어가는 삶'



시 박성기

반가사유상 2

무슨 생각 저리도 깊어
미동도 없이
뉘 기다리듯 학수고대 반문하고 있는 것일까

내면의 사유 다독이는 한 마음
고인돌 하늘로 앉아 있는 저 사유를 보는가



어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계의 기상에 걸가지 내지 않는 은하수같이
세기가 바뀌어도 한 생각뿐이라는 저 사유

하얀 두루미 웃고름 안고 멀리 다녀오듯
발나비 풀 찾아 강나루 건너오듯
하늘 따라 날아오듯 풀 숲길 조용히 날아오듯

거미줄 없는 세상
그런 사유(思惟) 아닐까.

약력

- ▲문학춘추, 한국문인협회 회원
-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 ▲수상 : 세계문학상, 영호남문학상 외
- ▲시집 : '자작나무를 심어놓고' 외

수필 장소영

벚꽃은 폈는데

푸른 잎, 자줏빛 색깔 하나 섞이지 않은 하얗다 하얀 꽃머리가 내 눈 밑에 펼쳐져 있다. 구름이 뭉개뭉개 피어오른 듯도 하고, 흰 솜털이 몽실몽실 뭉쳐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한낮 고요하기만 한 3월 마지막 날 아파트 뜰 풍경이다.

지난주 수원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주변에 개나리 울타리가 노랗게 꽃빛을 뿜어 기분을 상쾌하게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 입구에 늘어선 빛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귀환을 반겼다. 유독 바람마저 잔잔해 다른 해보다 꽃이 풍성하고 만개의 시간도 긴 듯하다. 수령이 오래된 빛나무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으니 먼 걸음을 하지 않고 벚꽃을 해마다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꽃구경은 항상 지나던 길이나 집 앞에 핀 꽃을 보며 감탄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한동안 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듯한데 여유가 없어서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댄지

만 그 여유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였을 것이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꽃인데 돈 들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치고, 스스로에게 지쳐가며 벚꽃을 보는 눈을 잃은 채로 살았다.

그리고 보니 화창한 봄날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에 얽힌 사연 하나쯤 있을 법한데 아무리 쥐어짜 봐도 맹탕이다. 덧없는 이별, 유한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할 때면 곧잘 이 꽃에 비유하곤 하는데 나는 글의 정서와 현실의 감정이 별개인 존재인가 보다. 되짚어 봐도 내 인생에 부러 꽃 나들이 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마치 못해 가야 할 상황에는 "내가 꽃인데 뭘 보러 가." 어개를 으쓱해 주변 사람들이 기막하다는 듯 실소했다. 이리니 벚꽃의 화사함에 감탄하기보다는 개화가 다른 해보다 이르면 가뭄이 심하고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먼저 와닿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의 주름이 가져다준 변화일까? 올해에는 나도 남들처럼 꽃놀이도 가고 산책도 해보리라 생각했다. 그저 이제나 저제나 꽃 피기만 기다렸는데, '아이유' 인감생심 꽃구경은 무슨...! 생동맞은 바람이 화를 부른 건 아닐까. 하필 찾아든 코로나 때문에 바깥 구경은커녕, 방 안에서 끄끄 봄날을 보내야 하더니.

봄꽃 구경은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무슨 조화일까. 한동안 뒀던 얇고 내다본 창밖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하얀 벚꽃이 화려하게 치장을 한 채 매기리 없는 나를 향해 웃어 보인다. 한참 늦은 나를 기다려주며 꽃이 무르익고 있었다.

겨우내 북풍과 맞섰던 놀이터 나무들도 며칠 새 화려한 꽃대궐을 이루어냈다. 베란다에서 열기 어린 몸으로 햇빛에 하얗게 반짝이는 향연을 흠뻑 즐기며 앞산을 바라보니 연초록 잎새 사이로 희끗희끗 산벚나무꽃도 길어가는 봄을 알리고 있다. 꽃길 따라 마실 나간 내 마음은 어느새 숲 내음 가득한 벚꽃 터널 아래 서 있다. 조곤조곤 속살대는 꽃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두꺼운 부엌도 아래 바지런한 봄의 몸놀림으로 돌아온 새순들의 푸릇한 향기에 코를 벌름대본다. 눈이 맑아지고 목이 탁 트이는 기분이다.

매년 매화 소식을 사그라들고 개나리꽃 질 무렵이면 벚꽃은 피어나 삼촌객들이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의 동시에 봄꽃들이 피는 것 같다. 이 중에서도 오랜 기다림 끝에 한꺼번에 해사한 꽃머리로 피어나 아주 잠시 머물다 훌쩍 떠나는 벚꽃은 아쉬울 때가 많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꽃비가 되어 흩날리며 여기저기 꽃무덤을 이루어 지나가는 우리의 신발 바닥에 짓이겨지며 흔적이 사라지곤 했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눈 호강을 시켜주니 저절로 관심이 가는 벚꽃이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시선만 돌려도 보이고, 지나치며 꽃이 피고 지고를 알며, 버찌 열매를 맺어 새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하는 빛나무. 한동안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사쿠라란 이름으로 무시도 당했지만 원산지인 이 땅의 것들이 있음이 밝혀져 그 오명이 조금은 희석되었다.

다시금 내려다보니 꽃나무 위에서 두 마리 새들이 파닥거리고 있다. 향에 취해 꽃물결 속에서 절영 하듯 날개를 펼치며 이리저리 고깃집을 헤대니 꽃비가 내려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꽃그늘 아래를 지나치며 저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사진을 찍느라 골몰하는 모습이다.

언제 우리가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둘 때가 주 있었는가. 발걸음과 도로에 시선을 둔 채 오늘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은가. 흥흥한 세상살이 소식도 잠깐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벚꽃의 선심. 잠시 지나가는 꽃잎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 사랑스런 눈빛으로 보게 된다. 이른 아침 햇살에 빛나는 꽃이파리가, 석양 무렵 붉게 반사되어 물든 꽃의 아름다움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렇게 내게도 슬며시 벚꽃은 피었는데 아직도 달 뜬 몸으로 맘껏 즐기질 못하고 있다. 설마 간밤에 지나가는 봄비에, 때 모르는 광풍에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마음 풀이며,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아~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낭만이 철철 넘치는 벚꽃 엔딩을 버스커버스가 되어 흥얼거리 본다.

약력

- ▲한맥문학 등단
- ▲광주문협회원
- ▲광주문학 편집위원(현)
- ▲월간 전사기대 '윌터' 연재 중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